

① 장기적 전망에서 比較收益性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

② 他經濟作物 특히 公害를 수반하는 競爭作物의 主產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③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他產業과 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지역

2) 蠶蠶主產地帶의 設定方法

蠶蠶主產地帶의 設定은 지금까지의 分析結果를 참고로 농촌인구 감소추세, 自然的, 社會經濟的 與件의 변동추세와 앞으로 他作物과의 比較收益性의 전망, 他農産物의 地域의 分化의 예상, 國土綜合開發계획과의 關係를 動態的 立場에서 正確히 추정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좀더 綜合的이고 구체적연구(예 : 蠶蠶地帶의 地域指標 設定)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V. 轉接期의 蠶絲業의 流通構造改善

(中央大學校 農科大學)

金 成 勳

蠶絲業發展과 價格流通構造

5.16 軍事정부의 탄생과 함께 適地 適産주의 勸農정책에 힘입어 오늘날 크게 發展을 보게된 한국의 蠶蠶業은 사실인즉 李朝中葉까지만 하여도 全國 방방곡곡에 크게 繁盛하였던 民族産業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李朝末 庶政이 混濁하면서 强要되기 시작한 가혹한 貢納行爲와 政商輩에 의한 收奪行爲의 혹독함에 견디다 못한 生産農民은 뽕나무를 “病民之草”라 부르는 一方, 나무뿌리에 몰래 毒汁을 注入하여 自然枯死케 함으로써 官으로부터 蠶蠶農을 폐업한데 대한 直接的인 叱責을 피하면서 가혹한 收奪對象으로부터 가까스로 脫出에 成功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天惠의 蠶蠶適地가 桑田碧海로 되버린 史를 다시 거슬러 克服하고 1960年代에 이르러 繁榮의 蠶業農으로 再構築하여 놓은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高度로 發達한 産業資本主義 시대에 있어서는 李朝시대와 같은 苛酷한 貢納行爲라든지 政商輩에 의한 原初的인 收奪行爲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대신하여 冷酷한 資本運用의 經濟法則이 하나

의 基礎産業이며 輸出産業인 蠶蠶業의 減産 또는 廢農을 유도하거나, 擴大再生産을 促進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流通過程에 있어서의 價格 메카니즘의 作用 및 反作用이라 할 수 있다.

生産의 持續與否는 단순히 自然的 技術的인 諸條件에 의하여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交換經濟 가운데서의 價格條件의 好, 不好에 의하여 決定된다. 물론 部分的인긴 하지만 技術改良¹⁾과 生産性증대로써 어느정도 주어진 價格 메카니즘의 機能을 補完할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인 眼目으로 經濟現象을 透視해 볼때 根本的으로 擴大再生産性을 持續케 하는 지렛대는 需要와 供給의 均衡을 유지케 하는 價格條件과 交易條件(terms of trade)이라는 사실에 歸納된다. 貨幣的 交換概念이 定着하지 않은 自然經濟 내지 自給自足的 時代에 있어서는 實物生産量의 크기가 곧바로 生産者의 收益을 決定하는 가장 가장중 요한 要因이 될 수 있었으나, 모든 經濟(生産)行爲가 機會費用의 觀點에서 評價되는 商品生産 關係에 있어서는 實物量의 크기 그 自體보다는 實物을 둘러싼 價格流通條件이 生産者의 費用 및 收益關係를 決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技術革新 및 生産性의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流通 및 價格條件의 改善에 귀착되며 蠶業의 盛衰도 이 價格메카니즘의 伸縮性 如何에 크게 支配됨을 면할 수 없다. 特히 國際交易市場에 거의 全産業의 運命을 依托하여 온 우리나라 蠶絲業의 경우 價格 및 流通條件은 産業發展의 核心的 決定要因이라 하여 過言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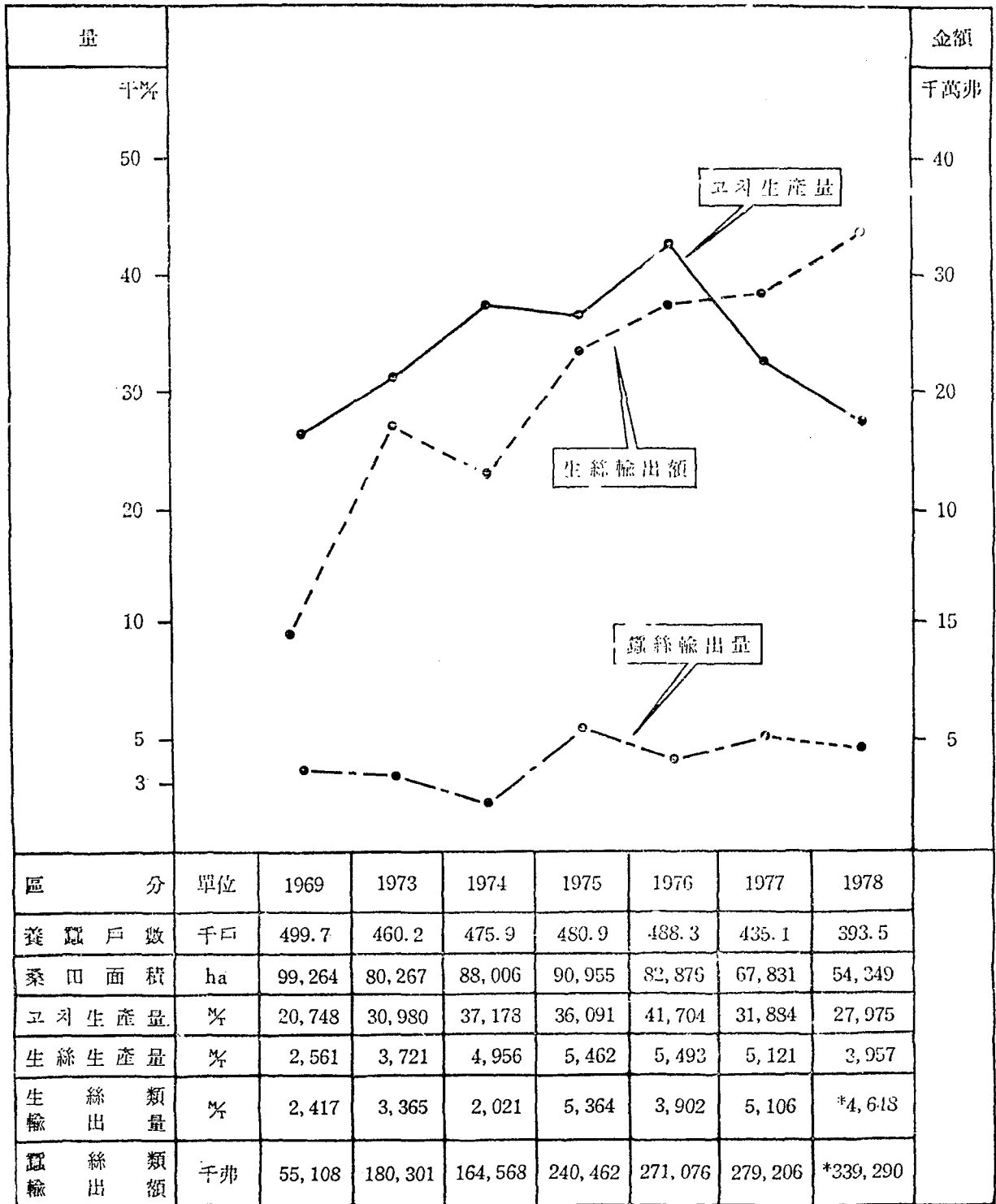
轉換期 蠶絲業의 葛藤

우리나라의 蠶業은 桑田面積이 1969年의 99.3千ha를 頂點으로 하여 계속 줄어들어 78년에는 54.3千ha에 不過하며 蠶繭生産量도 1969年의 20.7千톤이었던 것이 76년에는 41.7千톤을 기록하였으나 78年엔 약 28千톤으로 激減하였다. 이에 따라 蠶蠶農家は 69年의 499.7千戶에서 現在 약 393.5千戶로 줄어들었으며, 蠶業所得의 증가속도가 農家所得의 增加率을 따르지 못해 農家所得에 對한 比率이 73年의 17.6%를 고비로 跌차 떨어져 78年 現在는 6.8%에 不過한 實情이다.²⁾

한편 生絲生産量은 1969年의 2,561톤에서 76년에는 5,493톤이나 되어 수출의 頂點을 이루었으나, 다시 減

1) 技術革新(technical innovation)은 크게 나누어 資本集約的인 技術, 勞動集約的인 技術, 그리고 中立的 技術(neutral technology)이 있는데 費用의 커다란 增大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生産性을 증대시킬 수 있는 技術, 또는 費用의 增加分보다는 收益의 增加分을 상대적으로 많이 낼 수 있는 技術의 開發이 오늘날 高度化된 자본주의 社會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表 6. 蠶業생산 및 수출의 伸張趨勢



* 表는 推定임.

資料 : 농수산부 및 蠶絲統計 (1978),

少추세를 나타내어 78年엔 3,958톤으로 推定된다. 蠶絲類 輸出量은 73年과 74年의 에너지波動期에 激減을 보인 以後 다시 恢復의 氣勢를 나타내어 77年엔 5,016

톤, 78年엔 4,648톤을 수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生絲의 生産이 好調를 띄었던 1969年에 對比 1978年度의 蠶絲類輸出物量은 192.3%나 增加되었고 金額으로는 무

表 2. 國民所得, 輸出 및 農家所得中 蠶業의 比重

區 分	年 度	單 位	年 度						
			1970	1973	1975	1977	77/70		
國民總生產(A)		億	25,893	49,016	90,803	152,404	589%		
農業生產額(B)		"	6,342	10,600	19,894	30,868	487		
蠶業生產額(C)		"	96.1	382.2	498.6	512.7	534		
C / A		%	0.37	0.78	0.55	0.3			
C / B		"	1.52	3.6	2.51	1.7			
總輸出額(D)		千\$	1,003,808	3,256,912	5,427,351	10,474,210	1,043.4		
農水產物輸出額(E)		"	154,341	393,714	637,587	978,606	634.1		
生絲類輸出額(F)		"	75,094	180,301	240,462	279,206	371.8		
F / D		%	7.5	5.5	4.4	2.7			
F / E		"	20.8	45.8	37.7	28.5			
項 目		單 位	1970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農家所得(G)		千圓	255.8	480.7	674.5	872.9	1,156.3	1,432.8	1,780.0*
農業所得(H)		千圓	194.0	390.4	541.9	714.8	921.2	1,036.1	1,264.0*
養蠶所得(I)		千圓	12.5	84.6	112.5	107.5	134.7	117.8	122.1
I / G		%	4.9	9.7	16.7	9.0	11.6	5.6	6.9
I / H		%	6.4	11.7	20.8	10.4	14.6	7.8	9.7

*表는 推定值임

資料: 農水產部 1978年度 蠶絲業實績

려 615.7%나 伸張되었다.

위와같은 養蠶 및 蠶絲業의 無常한 浮沈現現象은 우리나라의 蠶絲業이 輸出의 基本跳躍臺로서 먼저 갖추어야 할 內需基盤이 없이 일찍부터 國際市場, 그것도 日本 一邊倒의 市場을 상대로 輸出爲主의 擴大過程을 밟아온 獨熱한 發展過程과 그 流通環境때문으로 解釋된다.

예컨대 1974年度 韓國産 生絲에 대한 日本의 規制措置는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養蠶, 蠶絲業界의 恐慌을 招來하였고, 급기야는 1977年度 減産政策이 勵行되고 蠶絲價格은 行政措置에 의해 1975年 以後 78年 까지 固定되어 이른바 斜陽産業의 표本으로 登場하기에 이르렀었다. 그동안 叙上한 바와 같이 4萬餘 畝의 桑田으로부터 애써 가꾼 뽕나무들이 뽑혀 팽개

쳐지고 양잠 農家의 蠶業所得은 工業化, 都市化의 進展에 따라 날로 치솟는 農村貨料金을 감당하지 못하여 相對的으로 감소하였으며, 製絲業은 그 나름대로 在庫가 累積되는 運營難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1974年 以來의 蠶絲業恐慌은 그 需給均衡관계에 一大 轉換의 契機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國民所得의 증대에 따른 꾸준한 內需促進의 結果, 國內絹織物需要를 상당수준까지 開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며, 相對的으로 交易條件이 有利한 對日輸出 畚타를 상당수준까지 確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桑田減小와 농가 收支惡化로 인해 고치 生産이 크게 줄어들어 수요에 비해 供給이 不足하는 逆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7年의 減産施策에 이어 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農業所得 構成要因으로서의 쌀, 보리 다음에 가장 큰 單一品目임에는 變함이 없다. 蠶絲業의 特徵으로서의 이 외에도 ② 거의 100%가 商品化되고 있는 現金作目이라는 點, ③ 輸出指向的인 戰略業種이라는 點, ④ 2,3次 産業과 깊은 關聯性을 맺고 있다는 點, ⑤ 양잠에 있어 勞動費의 比重이 특히 크다는 點,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生産자의 團體活動이 가장 미약한 點들을 들 수 있다.

表 3. 한국의 年度別 生絲類 需給實績

單位：表

區 分		年 度	1970	1973	1975	1977	1978
供 給	在 庫 移 越		1,680	3,870	36,730	52,380	39,720
	當 年 生 產		50,440	62,010	91,030	93,020	70,580
	計		52,120	65,880	127,760	145,400	110,300
需 要	國 內		2,670	2,300	5,000	11,500	15,000
	輸 出	乾 繭	—	—	—	12,900	—
		生 絲	33,920	35,130	11,350	19,150	25,440
		絹 襪 絲	630	300	44,840	13,500	10,580
		絹 織 物	11,220	20,680	33,200	38,050	41,440
計	45,770	56,110	89,390	83,600	77,460		
合 計		48,440	58,410	94,390	95,100	92,460	
在 庫		3,680	7,470	33,370	50,300	17,840	

註 1. 乾繭, 絹織物은 生絲換算量
 2. '77末在庫量 50,300俵中 10,580俵는 事故量으로 推定
 3. '78은 推定임
 資料：농수산부 1978.

表 4. 한국의 年度別 生絲類 輸出實績

(單位：金額千\$)
 物量俵)

區 分		年 度	1970	1973	1975	1977	77/70
直 輸 出	生 絲	物 量	33,920	35,130	11,350	(12,900) 19,150	56.5
		金 額	34,392	72,376	20,793	(25,349) 37,558	109.2
	絹 襪 絲	物 量	630	300	44,840	13,500	21,429
		金 額	697	749	88,607	29,183	4,186.9
	小 計	物 量	(75.5%) 34,550	35,430	56,190	(46.2%) 32,650 [12,900]	94.5
		金 額	35,089	73,125	109,400	66,741	190.2
加 工 輸 出	絹 織 物	物 量	(24.5%) 11,220	20,680	33,200	(53.8%) 38,050	339.1
		金 額	35,533	99,295	125,558	177,458	499.4
合 計	物 量		(100%) 45,770	56,110	89,390	(100%) 70,700 [12,900]	263.7
		金 額	70,622	172,420	234,958	244,199 [25,349]	345.8

註 ① [] 內는 乾繭 輸出로 外書임.
 ② '77絹紡絲類 輸出額 9,183千\$ 未包含
 ③ '77輸出總額：278,731千\$
 資料：농수산부, 1978

늘날 需給均衡의 逆轉現象이 빚어짐으로써 급기야는 生絲의 品貴, 製品價格의 昂騰, 그 結果 外國產 生絲를 輸入하자는 主張이 一部 絹織業間에 臺頭될 지경에 이르렀다.

1975년까지만 해도 生絲의 內需 比率은 5%에 不週 하였던 것이 78年度엔 15%水準에 육박하였으며, 앞으

로 계속 上昇추세를 보이고 있다. 輸出에 있어서도 絹織物 등의 加工輸出이 國內에 附加價値를 追加하는 一方 수출촉진에 寄與度가 적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비록 價格구조상 아직 不安하긴 하지만 점차 輸出 地域도 多邊化돼 가고 있다. 그러나 世界市場의 與件은 中共을 비롯한 第3國들의 交易伸張率이 括目하며

表 5. 한국의 잠사류 수출實績 : 品目別 市場別

(單位 : 千俵)

區 分		年 度	1970	1973	1975	1977	77/70(증가율)
日 本	直 輸 出		32.1	35.2	55.9	31.4	97.8
	加 工 輸 出		11.1	20.4	32.7	34.1	307.2
	計		43.2 (94.5%)	55.6 (99.1%)	88.6 (99.1%)	65.5 (92.6%)	151.6
日 本 外	直 輸 出		2.4	0.2	0.3	1.2	50.0
	加 工 輸 出		0.1	0.3	0.5	4.0	4,000.0
	計		2.5 (5.5%)	0.5 (0.9%)	0.8 (0.9%)	5.2 (7.4%)	208.0
合 計	直 輸 出		34.5 (75.5%)	35.4 (63.1%)	56.2 (62.9%)	32.6 (46.2%)	94.5
	加 工 輸 出		11.2 (24.5%)	20.7 (46.9%)	33.2 (37.1%)	38.1 (53.8%)	340.2
	計		45.7 (100.0%)	56.1 (100.0%)	89.4 (100.0%)	70.7 (100.0%)	154.7

註 ① 直輸出의 減少는 絹然絲 輸出不振에 起因
 ② 日本市場의 減少는 輸出市場 多邊化施策에 起因
 ③ '77實績은 乾繭輸出量 12,900俵未包含
 資料 : 농수산부, 1978

表 6. 蠶業 및 他作의 標準收益性 比較, 1977

(單位 : 원/10a)

作 目	粗收益(A)	生産費(B)	經營費(C)	純收益(A-B)	所得(A-C)	所得率(%)
蠶 業	127,630	192,938	66,500	△65,308	61,130	47.9
고 추	182,356	122,617	56,168	59,739	126,188	69.2
사 과	527,206	313,123	205,155	214,083	322,051	61.1
참 깨	66,214	50,833	17,584	15,381	48,630	73.4

資料 : 농수산부(농촌진흥청 표준수익성조사) 1978

價格구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競爭力이 弱하다. 韓國産 生絲와 有力한 수출窗口인 日本市場의 與件도 미묘한 國際政治情勢下에 대단히 可變的이다. 한편 蠶絲業의 生産基盤인 양잠農家의 經營構造는 硬直的인 固定價格體制下에서 年平均 29%씩 上昇하고 있는 動力費를 감당하지 못하고 省力化가 더디게 추진되는 가운데 收支壓迫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生産기반인 養蠶農家의 經營構造 不安定은 蠶絲業 전체 産業의 展望 그 自體를 위태롭게 할 水位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對日輸出一邊倒의 「價格우산」아래서 安住해 왔던 蠶絲業의 運用方式이나 官主導下에 비틀려 왔던 蠶繭價格 및 流通構造, 그리고 養蠶농가와 製絲業者 또는 製絲業者와 加工業者間의 交易上의 等式 不等式이 모두 再點檢되어야 할 막다른 時點에 이르른 것이다. 그에 따라 蠶業관계의 行政施策, 나아가 制度 自體에 있어 흔히 一般農業生産과 製造工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伸縮性이 크게 強調되어야 할 轉換期에 進入한 것이다. 더우기 國民所得의 向上에 따른 絹

織物에 대한 內需基調가 확대될 趨勢에 대비한 加工産業育成과 輸出入調整, 그리고 養蠶農家に 대한 근본적인 育成對策은 必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고 있다.

蠶絲業의 當面課題 : 價格流通面

그동안 養蠶農家의 收支低調와 減産政策의 영향 등으로 정부가 다시 增産施策을 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8年度 生絲총생산량은 약 11萬俵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內需分 13.6%와 移越在庫 16.2%를 제외한 약 70.2%가 輸出되었으며, 輸出 내역을 보면 生사 또는 견연사 형태의 直輸出分이 전체 수출량 의 39%, 그리고 나머지 가 견직물등의 加工輸出 형태를 취하였다. 生絲類輸出은 中共産의 덩핑으로 인해 日本地域 이외에서는 赤字를 면하기 어려운 反面, 加工수출은 국내경제에 대하여 附加價値를 生絲보다 俵當 약 2,500弗을 追加로 기여하면서 수출자체에 있어서도 지역別 큰 차이가 없이 純收益을 올리고 있다는 觀點에서 볼 때, 앞으로 적극 그 伸張을 권장할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絹織技術의 開發은 수출製品의 高級化와 多樣化 추세에 맞추어 發展시켜나갈 가장 緊要한 分野이며, 나아가서 장차 加速的으로 增大될 內需促進의 決定的인 跳躍基盤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최근 고치減産으로 인해 生絲의 需給에 蹉跌이 생기면서부터 日本地域으로의 直輸出을 더욱 많이 확보하려는 製絲業者와 加工物量을 더욱 擴大하려는 絹織業者間에는 價格과 物量, 그리고 生絲品質문제를 둘러싸고 深刻한 利害衝突 現象이 發生하고 있다. 現實에 있어서 製絲業者가 加工을 兼하는 物量은 19.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의 大部分의 加工製品의 수출이 絹織業者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業界는 不足된 物量을 가지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問題의 本質은 어찌하여 오늘날 이와같은 物量 不足事態가 빚어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와같은 事態를 근본적으로 終熄시킬 代案은 무엇인가 이다. 그에 대한 解答은 蠶繭 자체의 生産量이 어찌하여 줄어들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增産展望은 어떠한가에 歸着된다.

순전히 資本主義의 經濟原則에 비추어 볼 때 이제까지의 蠶繭價格 및 그 流通構造는 과연 양잠농가의 生産意慾을 고취시키기에 充分하였으며 앞으로 增産의 인센티브가 얼마만큼 주어질 것이냐를 물어야 옳다. 바꾸어 말하여 蠶絲業이 오늘날 當面한 物量不足의 문제는 生産力 基盤인 양잠농가의 蠶繭生産 인센티브가 날로 惡化되었기 때문이었다는데 그 근본적인 理由가所在하고 있음을 모두 認識하고 同意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잠사업계는 蠶繭生産業(양잠농가), 桑苗生産業, 蠶種생산업, 製絲業 그리고 絹織業의 5個 業界가 적절한 均衡과 牽制의 關係(마치 自然生態界에 있어 五獸不動의 均衡關係를)維持하면서 잠사업 一般의 共生형식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過去와 現在의 價價, 流通面에 있어 특히 蠶繭生産業(농민)이 나머지 4個의 關聯業種에 의해 4面에서 밀리는 「주름살 받이」 役割단 擔當하여 왔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基幹業種인 양잠업이 오래전부터 主導權을 잃은채 競爭에 밀리게 됨에 따라 잠사업 일반의 均衡生態(ecology)가 차츰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副作用이 蠶繭생산의 위축, 製絲 및 絹織 두 業界의 摩擦, 나아가서 他業種과의 利害對立이 尖銳化되어가는 것이다. 이때 事案의 本과 末을 混同하여 表皮의 診斷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蠶繭生産能力을 復舊시킬 價格 및 流通關係의 不斷한 調整作業이 수시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며, 基礎業種인 양잠업을 중심하여 可能限한 업계의 垂直的 水平的 統合(vertical horizontal integration)을 강력히 推進하는 한편, 他競合業種(예컨대 製絲,

表 7. 蠶絲類의 國內價格動向 (單位: 원)

區分	年度	單位	1973	1974	1975	1977	1978. 2
桑 苗		株	26.20	26.20	26.20	27.51	38.41
蠶 種		箱子	1,800	2,270	2,270	2,330	2,600
蠶 繭		kg	1,218	1,535	1,634	1,634	1,757
食 料 品		指數	100.0	134	182	247	289
쌀		噸	11,377	15,760	19,500	26,000	30,000

表 8. 韓國 및 中共絲의 對日輸出價格 (單位: \$/Lb)

國別	年度	1970	1975	1976	1977	1978. 10
韓 國		7.85	13.87	14.29	14.83	16.90
中 共		6.33	11.10	12.82	13.63	16.90
日 本(요꼬하마)		10.15	17.43	19.05	22.24	31.58

資料: 농수산부, 1978

絹織業)間的 統合과 같은 수직적 統合을 促進하는 것이 大型化 國際化되가는 國民經濟의 추세에 대해 잠사업이 共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더우기 모든 産業이 1974年の 에너지 波動을 지체롭게 잘 克服하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養蠶業만이 萎縮에 萎縮을 거듭하여 近代化의 過程이 더욱 늦어지고 일찍 斜陽化現家(예, 뽕나무의 掘取現象)이 빚어진 것에 대하여도 第2 라운드의 世界的 에너지波動의 조짐이 濃厚한 이때 다시 한번 評價해 보아야 할 새 課題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生活의 基本인 「불씨」만은 공동으로 세심히 管理하던 先人들의 지혜로움은 오늘날 高度化한 産業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 잠사업의 基礎인 養蠶農家라는 「불씨」를 어떻게 하면 꺼짐이 없이 잘 保護 育成하였다가 최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需要가 크게 發生할 때 어떻게 産業發展의 原動力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共通課題로서 마땅히 關聯 5個業界가 크게 考慮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치를 생산하여 실을 수출하기만 하면 程度의 差異는 좀 있더라도 生産農民이라 製絲業者 누구에게나 有利하였던 時節에는 그런대로 妥當하였던 蠶絲行政도 이제 國際市場의 情勢가 나날이 變動하고 國內 또는 內需가 점차 크게 增大될 趨勢, 그리고 收支條件 및 價格變動에 따라 産業間的 生産要素(노동 및 토지 등) 移動이 민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養蠶農業의 現狀을 고려할 때, 보다 科學化 迅速化된 促進爲主의 行政을 펴나가야 함은 물론, 이제 잠사업 目標도 잠사업의 基礎인 양잠농가의 生産性向上과 採算性 保障에 定着하지 않으면 안될 狀況에 있다. 잠사업 자체가 지금 存立의 岐路에서 再定立 改編하여야 할 상태에 있다 할

表 9. 한국의 生絲類의 輸出 純收益比較
(單位: \$/Lb)

區 分	1978			
	對日輸出	日本外輸出	國內	
生 絲	製造原價(A)	15.15	15.15	15.15
	販 賣 價 格	16.92	11.86	16.67
	純 收 益	1.77	△3.29	1.52
	純 收 益 率	10.5	△27.7	9.1
絹 撚 絲	製造原價(B)	16.05	16.05	16.05
	販 賣 價 格	18.93	15.35	—
	純 收 益	2.88	△0.70	—
	純 收 益 率	15.2	△4.6	—
絹 織 物	製造原價(C)	24.75	19.25	30.60
	販 賣 價 格	32.50	24.19	46.96
	純 收 益	7.75	4.94	16.36
	純 收 益 率	23.8	20.4	34.8

註 1. 生絲 및 絹撚絲販賣價格은 78.1~10月 까지의 輸出平均價格

2. 絹織物: 對日地域: 五枚朱子基準

日本外地域: 크렘뎃싱基準

國內: 44"(100gr)양단 yd當 5,000원 基準(生絲代 20.60\$/Lb 加工費 10.00基準)

資料: 농수산부, 1978

때 行政구조도 급변하는 諸般與件을 能率的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價格 및 流通上의 問題點

양잠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치 價格水準(price level)이 合理的이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重要的 것은 그 價格水準에 대한 생산농민의 信賴性이 확보되도록 장기간에 安定的 成長추세를 보장하는 일이다. 가격의 신뢰성(dependability)은 정책과 유통구조 개선에 달려 있다.

현대 蠶繭價格은 周知하듯 蠶業法 第17條에 의하여 生産費와 利潤, 他農産物價格 및 國際生絲價格 등을 참작하여 決定하도록 되어 있다. 完全競爭狀態나 다른없이 零細 不特定 多數의 생산농민에 의한 양잠업구조하에서 政府가 蠶繭價格의 決定에 直接 介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去來地位(bargaining power)가 낮은 생산자의 利益 또는 國內 不特定 多數의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하고자 할 때에만 그 妥當性을 尊重받는 것이 資本主義의 原則이다. 蠶業法의 法精神도 바로 이와 같은 論理에 의해서 小數의 大量 購買者(oligopsonists)인 製絲業者에 대하여 多數의 零細 生産자의 利益을 보

호하려는 것임을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實際로는 1973年度 이태 政府가 蠶絲價格을 決定함에 있어서 蠶絲生産費는 거의 뒷전에 밀쳐 두고 生絲輸出價格(3~6個月分 平均價格)을 基準으로 삼아 그 27%를 製絲業者의 加工費로 보고 나머지 73%를 原料代, 즉 生産農민의 蠶繭價格으로 策定하여 왔다.

日本の 경우 政府의 勸奨比率이 80對20으로서 生産자의 適正生産費를 보장하는 각종 支援政策과 自由協同去來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 蠶繭價格은 78年度 평균 8.5%의 小幅引上措置를 斷行하기까지 75년부터 現狀 固定을 일관해 왔으며, 그동안 年平均 29%씩 상승하는 농촌 勞賃費와 기타 資材代의 상승이 전혀 反映되지 않아, 농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양잠농가의 收支는 77年度 10a當 표준純收益이 6萬5천원 이상이나, 赤字를 나타내게 되었다. 다른 한편 쌀, 고추, 마늘, 사과, 참깨 등 다른 農産物 價格은 상대적으로 好調를 보이며 10a當 3~4萬의 純收益을 내고 있는 가운데 잠업에 動員되었던 生産資源(要素)이 他部門에 移動, 遊休 또는

表 10. 世界 生絲類의 生産 및 消費動向

가. 生産動向 (單位: 千俵)

國別	年度	1960	1965	1970	1975	1976	1977
		日本	256.9	315.8	407.6	380.9	364.5
中共	50.0	56.3	81.8	140.0	156.4	159.1	
蘇聯	39.3	47.2	50.0	54.0	54.0	54.0	
印度	26.8	22.2	38.2	40.0	47.0	47.0	
유럽(5個國)	73.9	43.6	46.2	44.6	49.5	60.0	
美國	48.0	32.9	7.2	4.3	5.0	3.7	
韓國	2.0	2.0	2.8	5.0	7.5	11.5	
其他	20.0	25.0	30.0	30.0	30.0	30.0	
計		516.9	545.0	663.8	698.8	713.9	706.8

나. 消費動向 (單位: 千俵)

國別	年度	1960	1965	1970	1975	1976	1977
		日本	300.8	318.4	342.0	336.1	298.0
中共	116.7	125.0	183.3	263.0	272.0	272.0	
韓國	7.8	14.2	50.4	91.0	91.6	93.0	
蘇聯	39.3	47.2	50.0	54.0	54.0	54.0	
印度	19.2	27.2	87.6	39.6	41.5	46.9	
北 韓	—	—	4.9	10.8	10.8	18.4	
브 라 질	1.6	1.9	4.3	14.7	18.0	18.6	
其他	28.8	20.3	27.8	27.9	28.5	28.8	
計		514.2	554.2	696.0	837.1	814.4	786.0

資料: 蠶絲業 座標設定推進委員會, 1978.6

廢棄된다 하여 異常할 것이 없다.

그 다음 蠶業法 제22조에 의해 정부가 蠶業基金을 造成하고 있는데 그 運營에 있어서 정부가 告示한 生絲基準價格을 上廻하여 輸出하였을 때 그 差額의 2分の1은 수출업자에게 나머지 2分の1은 基金으로 積立하는 方式을 취하고 있다. (현재 약 60억원 적립) 바꾸어 말하여 輸出好調에 따르는 利益이 發生하였을 경우 그 半은 수출업자가 直接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半은 基金으로 적립하였다가 淸사업 발전 및 적자수출 補償 목적등으로 充當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는 反面 그 基金은 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으로 용자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농가가 생산하는 잠견價格은 一定時點의 輸出價格에 대한 73%線에 固定되어 決定되는 一方, 輸出好調에 따르는 惠澤은 수출업자의 이익과 基金으로만 남게 되고, 그 基金의 用途도 생산자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生産농민이 이와같은 2重가격 구조에서 잃은 손실은 막대하다. 輸出價格의 好調에 따른 利益은 당연히 그때 그때 農민에게 還元됐어야 하는 論理는 마땅히 基金의 대부분을 基金의 原因이 되었던 生産자의 蠶繭價格을 補填하는 用途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基金積立制度는 輸出業者의 立場에서 볼 때는 가격상의 이익금 半을 일단 基金에 뺏기는 꼴이 되어, 장차 그 基金이 輸出不調時의 補償金으로 還元되겠지만 당장의 高價輸出努力의 인센티브를 制約한다고 反對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觀點의 차이는 이렇듯 다양하나 요컨대 生産農민의 利益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蠶繭價格의 決定方法과 比率에 있어 劃期的인 改善(上向調整)措置를 先決해야 하며, 그와 아울러 現行基金 方式대신 輸出價格 連動制를 導入하여 수출가격이 높아진만큼 蠶繭價格을 追加로 補償하는 方式을 강구하지 않는 한 누구를 爲한 무엇일 하자는 基金積立인지 그 目標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없다.

蠶繭去來에 있어 現在 肉眼檢査가 판매량 的 大部分(81%)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各 等級(5등급)의 配列에 있어 秀等以上이 開設되어 있지 않고, 上位等級間의 價格差異가 별로 크지 않으며, 肉眼檢査로는 各等級間에 속할 수 있는 品位를 次等級으로 判定받는 등 그외에도 農檢직원에 의한 現行 肉眼檢査方法은 生産農민에게 莫大한 不利益(실질적인 價格引下)를 招來하고 있다. 이 육안검사는 다른 한편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위해서도 좋은 品質의 蠶繭生産을 권장하는데 있어 人爲的인 大 障礙要因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絲量은 15% 정도인데 比하여 日本은

18.5%라는 큰 차이를 내고 있다. 反面, 自動機械檢査 設비는 現在 8個所에 약 90臺, 自動化率 28%인바 能率 및 費用등의 이유로 검사 荷口를 100kg이상씩 삼고 있으므로 해서 實質的으로 大荷口 또는 共同荷口 造成이 곤란한 現象의 大多數 生産農민은 그들에게 훨씬 有利한 機械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 製絲業者側은 기계검사를 反對 내지는 荷口擴大를 통한 검사件數의 축소를 主張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장기적으로 蠶繭의 品質과 絲量의 增加를 위해서는 기계시설을 擴大하여야 한다는 命題에 대하여는 當事者는 물론 國民經濟的으로 도 크게 妥當한 하나의 엄연한 趨勢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生繭형태의 蠶繭거래는 生産農민이 生産後 기껏해야 1~2週 이상을 保管하기 不能함으로 去來條件에 있어 不利益을 堪耐할 수 밖에 없는데 日本에서와 같이 적절한 經濟규모의 乾繭場을 生産자 團體가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生産農민의 利益은 막대한 것으로 推定된다. 그 한 代案으로서 現在 不實經營의 製絲業體 시설을 生産자단체가 引受하여 轉用하는 方案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農民共同生産/協同販賣/共同利用 體制가 名實共히 갖추어지려면 현재 정부의 育成策이 未洽하여 不實化되어 있는 農민조직인 養蠶協同組合을 하루바삐 整備하여 生産農民의 利益을 명실공히 공동으로 도모하고 技術開發 및 經營改善을 促進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生産자조직이 農協組織 태두리內에서 活動할 수 있을 前提條件을 造成하는 일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할 수 없다. 生産자 단체가 제 機能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앞서 강조한 技術 및 經營改善 이외에도 乾繭場 운영, 桑苗 및 蠶種의 開發普及, 製絲能力 確保, 日本等 外國으로서의 生絲直輸出까지 담당할 可能性은 한 달 夢想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현재 5個 관련업계의 均衡이 차츰 깨지고 特定業界의 勢力이 肥大하여진 現狀은 産業發展의 당연한 흐름이라 하더라도 生産基礎인 양잠업의 近代化를 前提로 하는 方向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이솝 寓話에 나오는 翁달샘 물을 더 많이 팔기 위하여 샘주위의 나무를 베어버린 暗愚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양잠업의 쇠퇴로 인해 잘못하다가는 生絲 및 加工物을 더 수출하기 위해 외국서 生絲를 수입해야 하게되고 마침내는 모든 수출가능성도 없어져 버릴 위기에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淸사업의 垂直的 統廢合이 必要하다는 命題와 양잠업의 基本을 構築하여야 한다는 命題를 混同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表 11. 主要國의 生絲類 輸出入 現況
가. 生絲類 輸出狀況 (單位: 千俵)

年度	國別	計	中共	韓國	日本	유럽			美國
						(5個國)	北韓	브라질	
1960		93.0	—	2.6	88.3	1.3	—	—	0.8
65		76.7	42.0	8.9	17.3	8.2	—	—	0.3
70		159.6	89.5	45.0	15.8	3.0	2.6	2.0	0.9
71		173.3	94.0	48.0	12.5	9.3	6.7	2.5	0.3
72		257.6	169.0	58.5	10.5	5.9	8.7	5.0	—
73		271.8	184.6	56.1	8.8	6.8	6.0	9.5	—
74		121.4	83.6	50.4	9.0	4.3	8.1	10.6	—
75		245.4	122.2	89.4	7.4	7.5	3.0	15.9	—
76		242.4	135.2	65.0	11.5	6.3	8.0	16.5	—
77		253.3	130.0	83.6	9.8	3.9	8.0	18.0	—

註: 生絲類=生絲·王絲·絹然絲, 絹織絲 包含

나. 生絲類 輸入狀況 (單位: 千俵)

年度	國別	合計	日本	美國	유럽						其他
					小計	伊太利	佛蘭西	西獨	英國	瑞西	
1960		112.3	—	49.5	62.8	16.7	18.6	5.3	10.7	11.5	—
65		80.8	5.1	130.4	45.3	20.8	11.7	3.2	3.2	6.0	0.4
70		171.7	93.9	25.1	52.7	30.9	10.3	3.0	3.1	3.7	1.7
71		169.8	124.1	13.2	32.5	18.6	6.8	3.1	1.5	2.4	0.1
72		261.3	204.3	14.7	42.3	20.5	9.9	3.1	1.8	2.5	4.5
73		265.1	200.2	18.2	46.7	26.6	10.6	3.3	1.8	2.4	2.0
74		178.5	138.4	11.7	28.4	15.2	5.3	3.1	1.2	1.6	2.0
75		232.4	171.2	14.5	46.7	31.3	7.6	1.3	1.4	3.1	2.0
76		237.9	173.9	6.3	57.7	37.5	9.6	3.0	2.1	3.5	2.0
77		227.1	153.2	3.0	70.9	44.7	13.9	3.9	2.5	3.9	2.0

資料: 蠶絲業座標設定推進委員會, 1978.6

結 言

이제까지 우리나라 蠶絲業의 價格 流通構造를 檢證함에 있어서 몇가지 強調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輸出指向(爲主)型의 蠶絲業을 계속 發展시키나감에 있어 양잠단계부터 먼저 輸出競爭力을 強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國民所得의 增大와 더불어 絹織物에 대한 需要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內需기반의 安定基調 위에 그 輸出可能性을 擴大摸索하는 立場을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의 勞力不足, 高賃金化에 따른 蠶絲業의 省力化와 規模의 經濟有利性(economy of scale)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採算性的 保障을 先決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生産農民의 組織化를 통한 共同技術開發, 經營改善, 桑苗 蠶種의 確保, 乾繭場 운영, 去來地位의

向上, 製絲等 加工業界의 進出, 直輸出의 摸索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關聯業界의 垂直的 統廢合은 어디까지나 蠶絲業의 近代化 및 組織化 措置를 前提로 하여 그 기반 위에서 推進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蠶繭價格은 米穀과 같이 生産費를 기준으로 策定함을 原則으로 하되 잠정적으로는 現行制度에 輸出價格連動制를 導入하여 差額의 發生時 追加로 補償하도록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수출의 好不好와는 관계없이 一定基準의 최저 保障가격을 豫示하는 예시가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現行 蠶繭價格의 構成比率(73對 27%)을 大幅 現實化시켜야 하며, 나아가서 製絲業과 絹織業의 점진적인 統廢合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現行 蠶絲業基金制度는 장차 輸出價格連動制에 의한 生産농민 價格補償制度로 代替할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基金 조성方法을 수출物量의 일정比率로 의 積立方式으로 전환시켜, 순수히 수출전망의 변동에 수출업자 스스로가 정부유도대로 대처케 하는 方式을 擇해야 한다. 즉 生産농민이 받아야 할 돈은 전액 生産농민에게 환원하고, 수출업자를 보호하는 基金을 그들의 비용으로 적립케 하여야 한다.

여덟째, 機械檢査施設을 大幅 擴張하여 肉眼검사에 따른 폐단과 生産농민의 不利益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며 現在 시설능력을 가지고도 荷口를 적게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기계검査件數를 보다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蠶絲業行政體制와 去來方法을 점차 民間主導型 近代資本主義型으로 改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먼저 이제까지의 規制위주의 措置보다는 促進위주의 措置를 펴나가는 行政方向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金永佑, 經濟的側面에서 본 韓國의 蠶絲業, 韓國蠶絲協會, 1979.3
2. 崔炳熙, 고치去來制度의 改善과 生絲需給에 따른 絹加工品의 高級化問題, 同上
3. 南相敦, 우리나라 蠶絲業의 現況과 政策方向, 同上
4. 大韓蠶絲會, 蠶絲統計, 1978.
5. 韓國經營科學研究所, 世界生絲需給推計, 大韓蠶絲, 1974.9
6. 農水産部, 韓國蠶絲業의 位置와 發展方向, 1979
7. 잠사좌표설정위원회, 韓國蠶絲業의 座標設定, 1978.6
8. 農水産部, 잠사업실적, 1978
9. 農水産部, 잠사류 가격관계 자료집